

2013년 12월 (제 15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 바다 가 들려주는 이야기



## 겨울 바다

김남조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海風)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김남조(金南祚, 1927.9.26~)

1950년 연합신문 시 '성숙(星宿)', '잔상(殘像)' 등단

2007년 제11회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

주요 작품으로 「정념의 기」, 「겨울 바다」, 「설일」 등이 있다.

#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 C O N T E N T S

PART 01	기획전시 그림으로 쓴 역사책	03
PART 02	소장품 이야기 어류학자 정문기 박사 사진	05
PART 03	박물관 사람들	07
PART 04	박물관 교육행사	08
PART 05	박물관 소식	09
PART 06	강연후기	10

## 기획전시

# 그림으로 쓴 역사책

## 국보 반구대 암각화(National Treasure, the Ban-gudae Petroglyph)

1971년 울산의 젓줄인 태화강의 지류 대곡천 앞에서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문자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그림으로 쓴 최초의 역사책'입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높이 약 4미터, 너비 약 8미터에 걸쳐 호랑이·사슴 등의 육지동물과 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그밖에 사람과 얼굴, 배, 고리잡이 모습 등 당시의 생활모습이 여러 면에 걸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동감 있게 묘사된 그림은 기록이 없던 시절 인류의 삶과 염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반구대 암각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지니는 의미가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작은 힘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암각화란 무엇인가?

'암각화'란 동굴 벽면이나 바위 면에 도구를 이용해 사물이나 기호를 새긴 그림을 말한다. 표현기법 상 도구로 바위에 표현물을 새기는 암각 岩刻 과 안료로 그리는 암벽화 岩壁畵 로 구분된다. 암각화는 대부분 하천 주위에 있는 바위 면에 새겨진 경우가 많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이 일상 생활공간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특별한 장소를 택하여 암각화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암각화는 구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의 남긴 예술작품으로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암각화의 주제는 크게 동물, 인물, 기타 도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암각화에는 항해, 수렵, 무용, 전쟁, 농경 등 당시의 생활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 문자를 활용하기 이전 인류의 생활 방식과 종교, 문화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기록물로서 매우 귀중하다.

### 세계의 암각화

암각화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세계 5대륙에 공통적으로 폭넓게 분포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암각화는 약 850군데 7만여 유적 4500만여 점에 달한다.

아시아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유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탐갈리 유적과 몽골의 알타이 암각 예술군 유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베제르 계곡의 동굴벽화와 몽 베고 유적을 포함한 알프스 암각화군 유적, 포르투갈 코아 계곡과 시에가 베르데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암각화는 선사시대 예술작품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역사, 문화는 물론 인류문명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한국의 암각화

한국의 암각화는 1970년 울주 천전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암각화가 보고된 이래, 1971년 울산 대곡리 반구대 유적과 고령 양전동 유적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한국 선사문화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후 포항 칠포리, 경주 석장동, 고령 안화리, 남해 상주리, 안동 수곡리, 영주 가흥리, 남원 대곡리, 여수 오림동, 함안 도항리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20여 개소 이상의 암각화 유적이 보고되었다.

그중 반구대 암각화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천전리 암각화는 추상화된 표현이 뛰어나다. 그리고 칠포리 암각화는 상징성이 강한 기호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암각화 유적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 결과 고고학, 민속학 등 인접학문 분야에서도 암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 234-1번지 일원의 대곡천변 암벽에서 발견되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북쪽 절벽 면에 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90여 점, 호랑이·사슴 등 육지동물 100여 점 등, 약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동물 그림 외에도 사면, 얼굴, 배, 미늘, 고래잡이 모습 등

선사인들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고래잡이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표현된 것으로 선사시대 인류의 문명사 연구에 중요하다.

이러한 암각화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천전리 각석, 주변의 공룡발자국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를 위해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들

반구대 암각화의 주요 소재는 호랑이와 사슴 등 육지동물과 고래·거북이 등 해양동물로 크게 나뉜다. 그 외 고래잡이 모습과 종교적 기능을 상징하거나 표현한 사면과 하늘로 나르는 배 등 약 300여 점의 그림이 바위면 곳곳을 채우고 있다. 중심 주제인 동물표현은 각각 육지는 수평으로, 해양동물은 수직으로 이동방향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육지동물은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해양동물은 여러 시점이 조합된 방식이 사용됐다.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환경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반구대 암각화를 제작한 집단은 목축을 위주로 하면서 특정 기간 고래사냥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육지와 해양동물이 함께 표현된 부분에서는 중첩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에 형성된 문화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즉 후대로 내려오는 동안에도 동일한 집단에 의해 제작된 예술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표현대상의 윤곽선을 선 또는 점으로 새기는 '선 새김' 과 윤곽을 새긴 후 내부를 고르기 쪼거나 긁어내어 형상을 드러내는 '면 새김' 기법 위주로 제작됐다. 암각화 제작 기법은 도구의 발달에 딸 표현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구대 암각화는 가는 선묘에 의해 소략하게 표현하는 단계에서 면 쪼기·긁은 선 새김·음각과 양각새김 후 갈기 등으로 제작 기법이 발전하고 마지막에는 이들 새김기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사실성이 완성되고 제작자의 조형적 기량이 성숙해져서 다양한 표현기법의 묘사는 물론, 호랑이 포박하거나 고래를 잡는 등 구체적인 정황 묘사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 후 장식적 요소가 확대되는 단계가 이어지고, 다시 단순화와 양식화되는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소장품 이야기  
어류학자 정문기 박사 사진

정문기 박사는 근대 어류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로, 우리나라 수산생물의 분류를 체계화하는 것에 큰 업적을 이룩하였다. 《한국어명보(韓國魚名譜)》, 《한국어보(韓國魚譜)》, 《한국어류생태학》,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 등의 많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 어류 연구의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해방 이후 미 군정 시절 등 그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그는 수산자원 보호법을 만들고, 체계적인 수산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식인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이 해방 이후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 학술지에 기고한 그의 회고록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업 육성을 위해 바친 수많은 노력을 읽을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일본과의 어업분쟁을 해결한 부분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결단력과 통찰력이 느껴진다.

- ① 사진\_저서 《한국어명보(韓國魚名譜)》와 정문기 박사(1977년)
- ② 사진\_홍진기 해무청장 이임식(앞 줄 가운데 흰색 의자 홍진기 청장, 왼쪽에 정문기 박사, 1958년 2월)

**<정문기 약력>**  
 1898년 9월 출생(전남 순천)  
 1929년 일본 동경대 수산학과 졸업  
 1939년 평안북도 수산시험장장  
 1946년 부산 중앙 수산 시험장장  
 1947 ~ 1949년 부산수산대학장 겸 농림부 수산국장  
 1957년 동국대학교 교수(어류학)  
 1965년 한국수산기술협회장  
 1969 ~ 1980년 문화재관리위원  
 1977년 선박해양연구소 고문,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 저술  
 1995년 사망



“... 이런 일이 있는지 몇 달 안 되어 나는 평안북도 수산시험장으로 발령받았다. 이 해가 1939년, 나는 이곳에서도 6년간 재직했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물고기 연구에 더욱 열을 올렸다. 압록강 상류를 비롯 압록강 지류인 후창과 현성까지 찾아가서 물고기의 생태와 산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 압록강을 국경으로 한 그곳에선 우리나라와 중국간 어업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모두 해결했다. 그 당시 중국 어선 3백여 척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들이 싣고 온 아편으로 금이나 물고기를 사서 만주로 건너가곤 했었다. 나는 이런 일을 중시하고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입장을 중지시켰다. 이러자 그들로부터 한때는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큰 마찰 없이 무사히 해결시켰다. ...”

“...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수산국장으로 있을 때 일본에 주둔해있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SCAP)에서 미국인 수산국장 해링턴 씨가 우리나라에 왔던 일이다. 일본인들이 그를 얼마나 구워삶아 놓았는지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 서해에 와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내 책상 위에 바둑판같이 그린 서해 지도를 내보이며 한 바둑판 안에 있는 수산자원의 수량을 낚날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하면 수 천 개의 바둑판(서해)에는 물고기가 무진장 있으므로 일본 사람에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나니 일본인들의 사주를 받고 온 그가 꽤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해링턴 씨에게 ‘당신도 수산대학을 나왔느냐’며 쏘아붙이고

‘당신이 내놓은 수치는 일본 사람이 계산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해링턴 씨가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나는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해링턴 씨는 깜짝 놀라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들려주기를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더욱이 일본인들이 36년간 다 잡아먹어 그렇게 많은 정어리까지 고갈 상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전쟁 중에 번식된 것이 조금 있을 뿐인데 일본인들이 계산한 수치를 당신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산국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때 나는 숫자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해 주었으므로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해링턴 씨는 내 말이 끝나자 동의한다며,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불법 조업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바다를 생각해 보면, 당시 정문기 박사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수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산업에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사는 내년 상설전시실 4층에 새롭게 꾸며지는 수산업 전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원로과학기술자의 증언 4-정문기 박사편」, 『과학과 기술 12(9) 33-37 1599-734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79년

## 박물관 사람들

국립해양박물관에는 일본과 관련한 여러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외교, 정치, 문화교류를 위해 일본과 왕래 했던 조선통신사 유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죽도제찰, 동해가 옛날부터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시된 지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관람객들에게 우리 박물관을 안내하고,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람객에게 우리 박물관을 안내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은 바로 독도와 동해 부분입니다. 양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 보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언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고 당당히 한국 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 일본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중앙박물관에 해당되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은 상설 전시 입장료가 400엔(한화 4500원), 특별전은 1300엔(한화 15,000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특별전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표를 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유물 보존을 위해 페트병조차 비닐봉지에 담는 것을 보면서 관람 에티켓을 지키는 높은 문화의식에 놀랐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일본 교토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전시를 더욱 자세히 관람하기 위해서 음성안내기를 빌렸는데 스토리텔링식 안내로 알기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전시물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시장의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떠들거나, 뛰는 사람 없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해서 관람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소란을 피우거나 뛰어다니는 관람객으로 인해 ‘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전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더 성숙한 관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부산은 일본 규슈 지방이라 가까워 학생들이 단체로 박물관을 찾아옵니다. 일본 교복을 입고 방문을 할 때면 신기한 듯 쳐다 보는 관람객들이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시모노세키시에서 초등 학생들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집중 해서 잘 들어주고, 많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내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학생 대표가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간다.”며, “다음에 또 방문하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 관람객이 우리 박물관을 찾고 오신 관람객에게 더욱 친숙하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림(전시운영 주임)



동경국립박물관

## 박물관 교육행사

**어린이박물관 공연 | 키즈퍼포먼스**

상시 (1일 3~4회) / 유아 / 80명 / 어린이박물관 / 인터넷 및 현장 접수 / 무료

해양을 주제로 한 마술 공연을 통해 어린이박물관 전시코너의 이해를 돕고 해양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유아공연프로그램

**어린이박물관 구연동화 | 우리바다를 지켜요**

매주 수~금요일 11:00~12:00 / 유아 / 80명 / 어린이박물관 / 인터넷 및 현장 접수 / 무료

바다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물고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 방법을 구연동화와 동요를 통해 배워보는 유아교육프로그램

**Happy Weekend | 우리가족 자산어보 만들기**

11~12월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나오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식탁에서 즐겨먹는 물고기 또는 해초들에 대한 우리 가족만의 어보를 고서 형식으로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 박물관 소식



박물관 셔틀버스 운행 2013.11.5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5일부터 운행되었습니다. 부산역→박물관 노선으로 오전 2회, 오후 3회 (토 5회, 일·공휴일 4회)에 걸쳐 운행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양문화 체험」 어촌 아동 초청행사 2013.11.16. / 11.26

국립해양박물관은 문화소외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체험 활동을 통해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해양문화 체험' 아동 초청행사를 가졌습니다. 16일, 기장군 소재의 초등학생 35명, 26일 마산 인애의 집 어린이 20명이 참여하여 박물관과 4D영상관을 관람하고, 심해 탐사 무인잠수정인 '해미래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불조심 홍보 '해상 퍼레이드' 2013.11.20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불조심 홍보 해상 퍼레이드' 가 열렸습니다. 소방정, 해경 경비정, 방제정 등 10여 대의 선박과 소방헬기가 동원되어 해상퍼레이드를 펼치고 선박화재를 진압하는 훈련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2013.11.8~30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캠페인' 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해양 안전실천본부가 공동주최한 해양안전 포스터공모전 입상작 16점이 박물관 1층 다목적 홀에서 전시 되었습니다. 사이좋은 기러기를 배에 비유해 안전을 지키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대상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입상작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공개문화강좌 강연 후기



“유물에 담긴 해양문화 이야기” (지현주)

국립해양박물관 강좌를 통해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해양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지난 봄에 개설된 '해양박물관 대학' 에 이은 두 번째 수강인데, 이번 강좌도 대회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생태지킴이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 를 통해 해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유익한 강좌를 적극 개설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 강좌명: 천리안 위성 소개

해양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강의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특성화된 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재미있고 유익하다.

국립해양박물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들이 가능한 것 같아 수강생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다.

대만 아쉬운 점을 앞으로는 각 박물관 역사봉사단체, 영도지역 아파르단지, 대학교 등 유관기관에 미리 공지를 하여 더욱 많은 수강생이 참가해주기를 바란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꼭 알아야 할 위성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생활에 쓰이는 여러 레미러를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상세하게 필요한 것만 집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유익하였다. 위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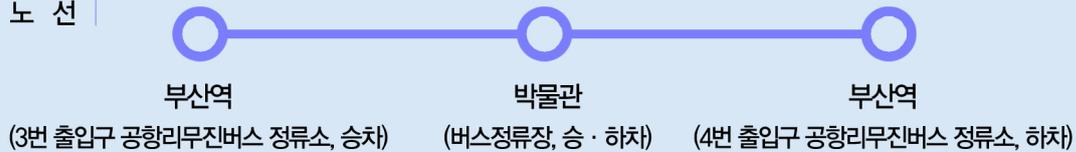


# 국립해양박물관

## 무료셔틀버스 운행안내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노 선



### • 횟 수 | 화~금요일 5회, 토요일 7회, 일·공휴일 6회

회 차	박물관 출발	부산역 도착/출발	박물관 도착	비 고
1	10:00	10:30	11:00	
2	11:30	12:00	12:30	
3	14:00	14:30	15:00	
4	16:00	16:30	17:00	
5	18:20	19:00	19:30	
6	19:30	20:00	20:30	토, 일, 공휴일
7	21:20	21:40	-	토요일

